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관한 의식실태분석

김정훈* · 국승기**

* 한국해양대학교 시간강사,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Analysi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for related regulations with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Jun-Hoon Kim* · Seung-Gi Gug**

* Divis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 Divis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Korea Maritime University

요 약 :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소득증대와 함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수상레저 스포츠의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전면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현황을 파악하고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실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의 규제를 중심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정도와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상레저활동자들 중 60% 이상이 등록, 안전교육, 보험, 안전검사에 대해 각각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불만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법적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 의식실태, 교차분석

Abstract : The interest of people is rising on water leisure and the population of water sports is increasing with expanded nationwide roads and 5-day work system for income elevation. However, there are many discussions about the way to prevent the accident related to water leisure activities.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was enacted in 1999 as a part of the way and revised in 2005. Therefore it needs to grasp the present state of water leisure activities and analyze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For the analysis, the question survey was conducted on water leisuers in the focus with regulation of the revised so that the degree of relevance and correlation between mutual variabl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d Crosstabs. From this study we found that more than 60% of water leisuers thought registration, safety instruction, insurance, and safety inspection necessary and there was a characteristic common inclination to all for necessity to impose legal controls on water leisure activities as the level of dissatisfaction for water leisure apparatus and cognition for necessity of insurance was high.

Key words :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Water leisure activities,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Crosstabs

1. 서 론

2000년 이후 도로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국민소득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한 주5일 근무제가 점차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여가활동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어 수상레저스포츠의 활동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이는 수상레저의 보급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1999년에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2005년에 전면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에 앞서 수상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활동의 실태와 수상레저안전법에 관련한 의식현황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여론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하는 노력은 수상레저활동의 현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규제에 대한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및 분석에서 생산되는 정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상레저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수상레저안전법의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상레저활동인구에 대한 현황파악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된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교차분석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관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인 수상레저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연구 등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과 내용

의식실태분석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의 사용과 분석 대상자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의식실태 분석과정에서 그 방법이 비합리적이거나 분석 대상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문제의 진단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실태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심층면접 및 참여적 관찰 등 다양한 연구방법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현황과 의식을 파악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의식실태분석에 적합한 조사항목의 설계를 통해 설문지를 만들어 수상레저활동의 경력이 있는 전국의 수상레저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무작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에는 크게 네 가지로 응답자의 인구 특성분석, 수상레저활동의 특성분석,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련 분석, 그리고 수상레저안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에 관련된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실태분석 등 수상레저인구가 인식하고 있는 수상레저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사항들이 포함되었다.

설문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는 빈도분석이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을 통해 상호변수간의 연관 정도와 상관관계의 방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가 검증되었다. 교차분석은 공요도수를 근거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분석기법으로 카이제곱검정의 카이제곱 값(χ^2), 점근유의확률(P), Goodman과 Kruskal의 타우(τ)의 값, 그리고 감마(γ) 값이 주축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Table 1 Statistics used for the analysis

구분	설명
카이 제곱(χ^2)	관찰도수와 기대도수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의 존재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검증 통계값이다.
타우(τ)	독립변수의 값으로 종속변수 값을 예측할 때 오차 내 비율척도를 반영하는 결합척도로서 값의 범위는 0에서 1사이이다. 타우(τ)의 값은 임의의 기대(random chance)에 비해 그 값만큼의 오차율(error rate)을 감소시킬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한다.
감마(γ)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강약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통계치로서 기준이 되는 계산 논리는 정합(concordant pair)과 부정합(discordant pair)이며, 계산된 값의 범위는 -1에서 1사이이다. 감마값이 (-)값을 가질 때 두 변수의 관계는 부의 관계에 있고, (+)값을 가질 때 두 변수는 정의 관계가 있다고 해석한다. 또한 절대값을 기준으로 0에서 0.3 사이에 있을 경우 두 변수의 관계가 약하다고 하고, 0.7 이상일 때 두 변수의 관계가 강하다고 한다. 그리고 0.3과 0.7 사이에 있을 경우 두 변수는 보통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상레저인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그 접근방법이 전국의 불특정 수상레저인구를 표본대상으로 조사·분석한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인의 수상레저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현장을 관찰하며 수상레저인구 개인의 수상레저활동환경과 행태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충분히 도출하여야 하나 이는 많은 연구 인력과 조사기간이 소요됨으로 본 연구는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진다.

3.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실태분석

3.1 인구 통계적 특성

전체 설문응답자 중 남자는 272명으로 전체인원의 85.5%로 많았고, 여자는 44명으로 13.8%를 차지하였다. 수상레저기구의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14세 이상이나 20대 이상의 연령에서 50대까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20대와 30대가 192명으로 전체인원의 60.4%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졸이상의 학력이 132명으로 전체의 41.5%를 보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고졸이상으로는 300명으로 전체의 94.3%를 나타냈다. 100~300만원의 월평균 수입자는 140명으로 전체의 44.0%를 보여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도 76명으로 전체인원의 23.9%를 차지하였다.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statistics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성별	남	272	85.53
	여	44	13.84
	무응답	2	0.63
연령대	10대	1	0.31
	20대	104	32.70
	30대	88	27.67
	40대	75	23.58
	50대	41	12.89
	60대 이상	4	1.26
	무응답	5	1.57
학력	중졸	12	3.77
	고졸	91	28.62
	대학재학	77	24.21
	대졸이상	132	41.51
	무응답	6	1.89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76	23.90
	100~300만원	140	44.03
	300~500만원	61	19.18
	500~700만원	20	6.29
	700~900만원	6	1.89
	1000만원 이상	6	1.89
	무응답	9	2.83

3.2 수상레저활동의 특성

1~3년과 10년 이상의 수상레저활동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각각 75명, 72명으로 전체의 49.9%를 차지하였고, 1년 미만도 69명으로 21.7%를 보였다. 조종면허를 취득한 응답자는 198명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하였으며,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응답자는 118명으로 전체의 37.1%를 보였다. 동력수상레저 기구에 대해 1년 미만의 조종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76명으로 전체의 23.9%로 가장 많았고, 전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47명으로 전체의 14.8%를 차지하였다. 또한 조종경력이 1년 이상인 응답자는 전체의 60.7%를 보였다. 매월 1~2회의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93명으로 전체의 29.3%를 보여 가장 많았으며, 매일 하는 인원도 전체의 14.5%를 차지하는 반면 거의 수상레저활동을 하지 않는 응답자도 46명으로 전체의 14.5%를 보였다.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water leisure activities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수상레저 활동경력	1년 미만	69	21.70	198명 (62.3%)
	1-3년	75	23.58	
	3-5년	50	15.72	
	5-10	52	16.35	
	10년 이상	72	22.64	
	무응답	0	0.00	
조종면허 취득년도	2000년	40	12.58	198명 (62.3%)
	2001년	37	11.64	
	2002년	32	10.06	
	2003년	40	12.58	
	2004년	20	6.29	
	2005년	29	9.12	
	미취득	118	37.11	
	무응답	2	0.63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경력	1년 미만	76	23.90	193명 (60.7%)
	1-3년	54	16.98	
	3-5년	43	13.52	
	5-10년	47	14.78	
	10년 이상	49	15.41	
	전혀 없다	47	14.78	
	무응답	2	0.63	
수상레저 활동빈도	매일	46	14.47	
	매주 1-2회	76	23.90	
	매월 1-2회	93	29.25	
	6개월 1-2회	55	17.30	
	거의하지 않음	46	14.47	
	무응답	2	0.63	

3.3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련 특성

수상레저활동 중에 사고의 위협을 경험하거나 사고를 당한 응답자는 174명으로 전체의 54.7%를 보였으며, 사고의 위협을 경험하지 않은 인원도 143명으로 전체의 45.0%를 차지하였다. 안전교육을 받은 응답자는 156명으로 전체 49.1%를 차지하였으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도 161명으로 전체 50.6%를 보였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응답자 중에 전체의 23.3%인 74명은 해양경찰청 및 위탁기관에서 교육을 받았고, 관련협회에서는 전체의 10.7%인 34명이 교육을 받았다. 또한 기타 학교 등

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안전성에 대해 보통으로 평가한 응답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33.3%를 보였으며,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180명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불안전하다고 평가하는 인원은 29명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였다. 수상레저활동 중 유사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211명으로 전체의 66.4%를 보여 가장 많았고,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6명인 전체의 5.0%로 나타났다.

Table 4 The characteristics related to safety of water leisure activities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사고경험	자주 있음	14	4.40	174명 (54.7%)	
	가끔 있음	153	48.11		
	사고 경험함	7	2.20		
	없음	143	44.97		
	무응답	1	0.31		
안전교육 이수경험	있음	해양경찰청 및 위탁기관	74	23.27	156명 (49.1%)
		해양수산연수원	9	2.83	
		대한적십자사 및 지부	7	2.20	
	없음	관련협회	34	10.69	
		기타	16	5.03	
		무응답	16	5.03	
		없음	161	50.63	
	무응답	1	0.31		
수상레저 기구 안전성 평가	매우 안전	80	25.16	180명 (56.6%)	
	다소 안전	100	31.45		
	보통	106	33.33		
	다소 불안전	22	6.92		
	매우 불안전	7	2.20		
	무응답	3	0.94	29명 (9.1%)	
보험의 필요성	반드시 필요	211	66.35	294명	
	어느 정도 필요	83	26.10	(92.5%)	
	별로 필요없음	12	3.77	16명	
	전혀 필요없음	4	1.26	(5.0%)	
	잘 모름	7	2.20		
	무응답	1	0.31		

3.4 수상레저안전법 개정관련 인식실태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8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3명으로 전체의 16.7%를 나타냈다.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 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8명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등록제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1명으로 전체의 16.0%를 나타냈다. 수상레저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42명으로 전체의 76.1%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보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명으

로 전체의 9.4%를 나타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03명으로 전체의 63.8%를 차지하였으며, 반면에 안전검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0명으로 전체의 18.9%를 나타냈다.

Table 5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on revised water Leisure Safety Regulation

구분		인원(명)	비율(%)	비고
안전교육	필요함	208	65.41	
	필요없음	53	16.67	
	모름	54	16.98	
	기타	2	0.63	
	무응답	1	0.31	
등록제도	필요함	208	65.41	
	필요없음	51	16.04	
	모름	52	16.35	
	기타	5	1.57	
	무응답	2	0.63	
동력수상 레저기구 보험	필요함	242	76.10	
	필요없음	30	9.43	
	모름	40	12.58	
	기타	4	1.26	
	무응답	2	0.63	
안전검사	필요함	203	63.84	
	필요없음	60	18.87	
	모름	53	16.67	
	기타	1	0.31	
	무응답	1	0.31	

3.5 의식실태에 대한 교차분석

수상레저활동의 의식실태에 대해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수상레저활동의 특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련사항을 분석한 교차분석 자료(Table 6)에 의하면, 먼저 조종면허를 취득 또는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수준 0.05이하)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학력, 면허유무,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안전교육의 이수경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제도에 대한 의견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수준 0.05이하)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경력,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상레저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수준 0.05이하)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안전교육의 이수경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유의수준 0.05이하)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학력, 수상레저활동의 경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경력,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안전교육의 이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으로 나타났다.

1) 안전교육이수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의 교차분석

안전교육이수에 대한 의견은 학력, 면허의 유무, 수상레저활동빈도, 안전교육경력, 기구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각각 아는 경우 타우(τ) 값이 0.024~0.097으로서 예측력이 단지 약 10% 이하의 정도에서 증가하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그 관계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방향과 강약을 유의미한(유의수준 0.05이하) 감마(γ) 값을 통해 판단하면 학력과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388~0.469를 보여 학력이나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이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면허유무, 안전교육경력,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365~-0.419로 (-)를 보여 면허가 없거나 안전교육의 경험이 없고,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안전교육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2) 등록제도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의 교차분석

등록제도에 대한 의견은 동력기구의 조종경력,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기구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각각 아는 경우 타우(τ) 값이 0.049~0.131이므로 예측력이 단지 약 5~13% 정도에서 증가하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그 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548을 보여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이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252~-0.432로서 수상레저활동의 빈도가 낮거나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등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3)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의 교차분석

동력수상레저기구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안전교육의 경험, 기구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각각 아는 경우 타우(τ) 값이 0.016~0.072로서 예측력이 단지 약 2~7% 정도에서 증가하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그 관계가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790을 보여 보험의

Table 6 Crosstabs on the actual condition of consciousness for water leisure activities

구분	안전교육			등록제도			동력기구 보험			안전검사		
	χ^2 값 (P)	τ 값	γ 값 (P)	χ^2 값 (P)	τ 값	γ 값 (P)	χ^2 값 (P)	τ 값	γ 값 (P)	χ^2 값 (P)	τ 값	γ 값 (P)
성별	2.811 (0.094)	-		1.047 (0.306)	-		0.442 (0.506)	-		2.590 (0.108)	-	
연령대	8.485 (0.131)	-		6.113 (0.295)	-		11.000 (0.051)	-		7.799 (0.168)	-	
학력	15.901 (0.001)	0.062	0.388 (0.003)	7.401 (0.060)	-		3.290 (0.349)	-		9.839 (0.020)	0.038	0.222 (0.080)
월수입	2.507 (0.474)	-		2.503 (0.475)	-		2.375 (0.498)	-		5.724 (0.126)	-	
수상레저 활동경력	4.611 (0.330)	-		4.128 (0.389)	-		5.784 (0.216)	-		9.713 (0.046)	0.037	0.205 (0.062)
면허유무	6.157 (0.013)	0.024	-0.419 (0.007)	0.622 (0.430)	-		0.109 (0.741)	-		1.696 (0.193)	-	
동력기구 조종경력	10.072 (0.073)	-		12.480 (0.029)	0.049	0.006 (0.950)	5.641 (0.343)	-		0.027 (0.048)	0.028	-0.032 (0.739)
수상레저 활동빈도	19.175 (0.001)	0.074	-0.174 (0.069)	16.601(0. 002)	0.065	-0.252 (0.010)	8.814 (0.066)	-		10.375 (0.035)	0.040	-0.090 (0.354)
사고경험	4.351 (0.226)	-		4.029 (0.258)	-		4.705 (0.195)	-		4.351 (0.226)	-	
안전교육 이수경험	5.929 (0.015)	0.023	-0.365 (0.014)	0.518 (0.472)	-		4.355 (0.037)	0.016	-0.395 (0.037)	1.085 (0.298)	-	
기구 안전성	25.189 (0.000)	0.097	-0.411 (0.001)	33.822 (0.000)	0.131	-0.432 (0.001)	19.316 (0.001)	0.072	-0.484 (0.003)	32.533 (0.000)	0.125	-0.376 (0.002)
보험 필요성	22.561 (0.000)	0.086	0.469 (0.002)	20.176 (0.000)	0.078	0.548 (0.000)	62.960 (0.000)	0.231	0.790 (0.000)	15.535 (0.004)	0.059	0.455 (0.002)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이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경험이나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365~-0.419로서 보여 안전교육의 경험이 없거나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4) 안전검사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의 교차분석

안전검사의 의무에 대한 의견은 학력, 수상레저활동경력, 동력기구의 조종경력,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기구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각각 아는 경우 타우(τ) 값이 0.040~0.125로서 예측력이 단지 약 4~13% 정도에서 증가하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기에 그 관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0.455의 감마(γ) 값을 보여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이수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구의 안전성에 대한 인지도는 감마(γ) 값이 -0.376으로서 보여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의식실태분석은 수상레저활동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상레저안전법과 관련한 의식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그 실시 목표는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무작위로 전국의 수상레저인구를 설문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국의 수상레저인구를 대상으로 한 현재 수상레저활동현황과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제에 대한 의식실태 설문조사를 통계 처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일정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상레저활동자는 전체의 65.4%로 나타나 안전교육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였다. 안전교육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는 학력, 면허유무,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안전교육의 이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이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조종면허가 없을수록, 안전교육의 경험이 없을수록,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

였다.

둘째, 개인소유의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상레저활동자는 전체의 65.4%를 차지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제도와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경력,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이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수상레저활동의 빈도가 낮을수록,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기구의 등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수상레저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상레저활동자는 전체의 76.1%를 차지하여 원칙적으로 보험을 수상레저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보험가입 의견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안전교육의 이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이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교육의 경험이 없을수록,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수상레저활동자는 전체의 63.8%로 나타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의견과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특성 사이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는 학력, 수상레저활동의 경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경력, 수상레저활동의 빈도, 안전교육의 이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성 및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 등이었다. 또한 수상레저활동자는 기구의 안전성이 낮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금번 수상레저활동자의 의식실태분석은 기초적이고 탐색적인 성격이 크다. 또한 현 수상레저활동자의 현황을 진단하고,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와 이에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상레저활동자의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권세혁(2001), “설문조사분석”, 자유아카데미.
- [2] 남동현(2002), “해양스포츠 관광경영론”, 대경북스.
- [3] 손영석(2002), “(체계적) 설문 디자인”, 학현사.
- [4] 허만영(2001), “통계분석론”, 법문사.
- [5] Mann, P. S. (2004), “Introductory Statistics”, John Wiley